

동창 송년회 - 2006



전해 고등학교 동창 송년회는 혼자 남자였습니다만, 올해는 남자가 더 많았습니다. 우연히도 1차에서 고등학교 국어, 영어 선생님을 뵈었습니다; 2차는 건너뛰고 3차에서는 뜻밖에도 11년만에 처음보는 녀석들이 뭉쳤습니다. 그리고 반가움을 만끽 할 때 즈음(4차) 저는 뺨었습니다;

반갑다 친구야~ 2007년은 600년 만에 돌아오는 황금돼지 해라더라, 새해
복들 많이 받아라~!(자는데 뒤통수 가해한 신발들은 쫌만 받아) 그리고
이곳을 방문해 주시는 여러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